

옷의 힘

—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



06

“정말 좋은 옷”
옷의 가치를 전합니다

MADE FOR ALL



UNIQLO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옷의 힘

06

표지 사진 : 네팔의 난민 소녀

CONTENTS

- 04 다양한 장소에서 탄생하는 여러가지 옷의 힘
- 06 누가 만드는가?
- 08 「정말 좋은 옷」이 탄생하는 곳
- 10 매장 안에서의 옷의 힘
- 12 옷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 14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옷」을, 옷의 힘을 전합니다

유니클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옷」을 전해 드리기 위하여, 전세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취향의 고객이 매장을 찾아주시고, 직원의 국적과 개성도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니클로는 전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 사업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가속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잠시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옷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 「옷에는 이러한 힘도 있구나.» 이처럼, 지금까지 생각도 하지 못 했던 옷의 가능성에 관하여 새롭게 깨달게 해 주는 것은 고객이 무심결에 하신 말씀 한 마디인 경우도 있고, 난민 캠프에서의 경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옷의 힘」에 보내주신 의견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옷의 힘」에서는, 저희들의 활동과 옷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을 전해 주시면, 새로운 옷의 가능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옷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옷의 힘이란 무엇인가? 옷에는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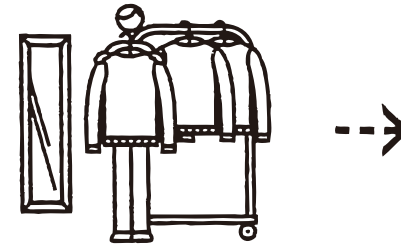
다양한 장소에서 탄생하는 여러가지 옷의 힘

유니클로의 연간 생산총수는 약 6억벌입니다.

전세계 944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1년 간 그 매장을 찾아 주시는 고객은 약 2억명입니다.

고객에게 필요 없게 된 옷은 회수하여 전세계의 난민캠프 등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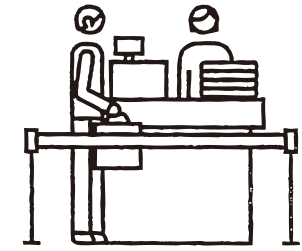
옷은 만들어지고 나서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다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칩니다. 만드는 사람의 보람, 입는 사람의 즐거움, 혹은 다음에 입을 누군가를 생각하는 친절함 마음 등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더해져 다양한 옷의 힘이 탄생되게 됩니다.



WEAR

오랫동안 소중하게 입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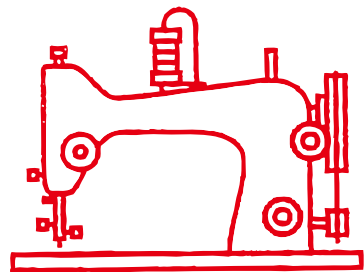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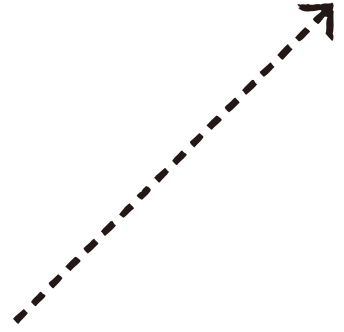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패션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체형을 커버하는 등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한층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등 기분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입하신 유니클로의 옷을 고객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오랫동안 입어주시기를 바랍니다.



RECYCLE

불필요해진 옷의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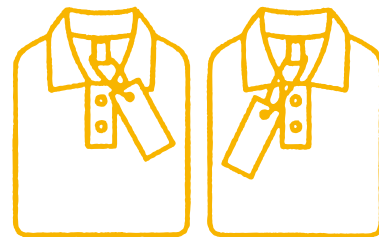
고객님께서 필요 없게 된 옷은 유니클로 매장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가져다 주신 의류 중 상태가 좋은 것은 세계의 난민·피난민 캠프에 기증(약 90%)하고, 입을 수 없게 된 것은 섬유화 리사이클(약 10%)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한 옷은 약 900만 벌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MAKE

생 산

유니클로의 옷은 중국과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총수는 약 6억 벌.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고용 기회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상품의 안전성은 물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적절한지도 생각하며 그 개선 및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SELL

판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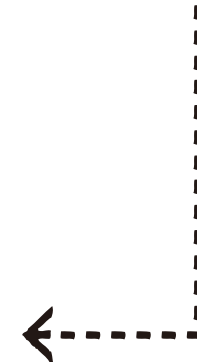
유니클로의 매장수는 전세계에 약 944개이며, 매장 직원수는 약 4만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정사원도 있고 아르바이트 사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연령과 성별,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고객도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매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옷의 힘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SEND

기 증

옷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활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맡겨주신 의류는 세계의 난민·피난민 캠프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개국에 약 312만 벌을 기증하였습니다. 유니클로의 직원도 현지에서 직접 가서 옷이 마지막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옷은 부상 방지 및 위생 개선은 물론,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여성이 사회에 참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세계에 3,000만 명 이상의 난민·피난민 한 사람당 한 벌씩, 유니클로의 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는가?

유니클로의 옷은 유니클로가 정한 품질 기준과 노동환경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파트너 공장 중 한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자동차로 3시간. 장쑤성의 진탄(金壇)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널찍한 부지는 신록으로 덮여 있고, 중앙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으며 연못 주위를 둘러싸듯 서 있는 건물과 기숙사의 모습은 어딘가 대학의 캠퍼스와 흡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색색의 다운 자켓과 청바지를 입은 젊은 종업원들이 수다를 떨면서 떠들썩하게 식당으로 향합니다. 「겨울이 되면, 연못에 들오리들이 찾아 와요. 그 모습을 보면, 아, 물이 아직 깨끗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하게 돼요.」 중국의 대표적인 어패럴 생산기업의 하나인, 첸펑(晨風)그룹의 인귀신(尹國新) CEO의 표정은 언제나 온화합니다.

인귀신 CEO가 고향인 이 마을에서 봉제공장을 시작한 것은 17년 전입니다. 유니클로와의 거래는 14년째입니다. 당시는 아직

두 기업 모두 작은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룹 전체에 7,60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연간 3,800만 벌의 옷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었지만, 인귀신 CEO가 일하는 모습은 변함 없이 한결같습니다. 시간을 내어 공장 안을 돌면서, 옷은 얼굴로 종업원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단추 다는 법을 엄격하게 체크합니다.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어 메모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착실하게 품질을 향상시켜, 치열한 경쟁을 이겨 왔습니다.

「보세요. 훌륭한 직원들이지요? 이렇게 우수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행운입니다.」 생산현장을 바라보는 인귀신 CEO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력적인 노동환경과 맛있는 식사, 다른 회사에 뒤처지지 않는 임금.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능력 있는 인재가 오랜기간 근무하고,

기능이 향상하고, 더욱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귀신 CEO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라고 인귀신 CEO는 말합니다. 「유니클로의 목표는 세계제일의 캐주얼 기업이 되는 것일 겁니다. 저희들은 세계제일의 봉제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제일의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러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유니클로의 작은 자랑입니다.



인귀신(尹國新)

1964년 중국 장쑤성 진탄(金壇)시 출생. 첸펑(晨風)그룹 CEO,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제 11기 전국인민대표, 중국 방직품 수출입상회 부회장.



연간 총생산수

약 600,000,000벌

「정말 좋은 옷」이 탄생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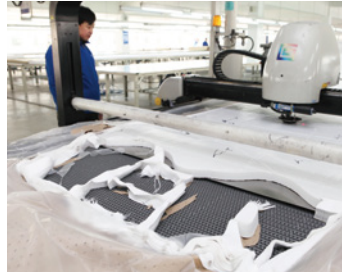
유니클로의 옷은 어디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고 있을까? 그리고, 만들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고, 휴일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파트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상의 모습을 전해 소개합니다.

WORK

작업 시작은 8:30. 하루의 노동시간은 약 8시간으로, 재단, 봉제, 검품 등 각자의 근무 위치에서 작업을 합니다. 중국 진탄(金壇)시에 있는 파트너 공장에서는, 약 2,300명이 일하고 있으며, 매일 생산량은 약 90만 벌입니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신 기계를 도입하고 있는 한편, 검품, 다림질, 옷접기 등 사람의 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품질을 좌우하는 봉제는 속도와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 유니클로의 기준은 오차 0.5mm이하. 천을 너무 잡아 당겨 완성시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각 부분을 재봉질한다.



색깔과 무늬를 맞추기 위해, 1장의 셔츠는 같은 옷감으로부터 재단한 조각들로 만든다. 또한, 재단한 조각들은 1장씩 번호를 매겨 관리한다.

(주) 패스트 리테일링 상품본부 생산부 봉제기술·장인팀 장인(匠人) 이시즈카 초요시 씨

이 업계에서 40년 이상 일해 오고 있습니다. 옷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기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것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셔츠의 단추 달기는 기계로도 가능하지만, 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0.5mm까지입니다. 유니클로의 기준인 0.2mm는 사람의 손으로 하나씩 잘라야만 가능합니다. 젊은 직원들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매일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LUNCH TIME

점심시간은 12시 전후부터 1시간 반씩 교대제로 운영됩니다. 공장에 병설된 커다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한 끼당 가격은 약 3~4위안 정도(약 40~50엔) 정도입니다. 임금외에 별도로 점심값이 공장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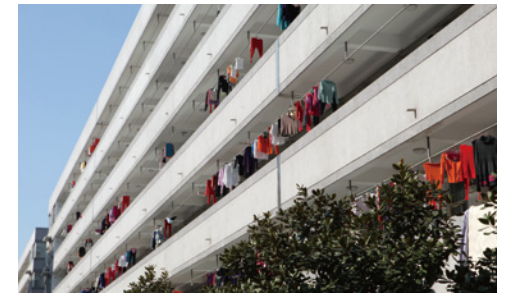


풍성한 양의 식사는 직원들의 에너지원. 오후작업에 대비하여 든든하게 배를 채운다.

면 혹은 밥에 반찬 1~2가지가 추가되는 것이 보통. 여럿이서 다른 반찬을 골라서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즐기기도 한다.

DORMITORY

직원의 대부분이 공장에 병설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만 고향을 찾는 직원이 많고, 고향에 남겨둔 가족과 매일 밤 휴대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실 4~6명의 기숙사 방. 침대 주위는 좋아하는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다.



류지웨이(劉吉偉)씨(19살)

후베이성 출신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전에 이 공장에 왔습니다.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4인 1실인데, 다른 기숙사생들과 사이가 매우 좋아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셔츠는 옷감에 광택이 있어서 멋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 저도 사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열심히 기술을 익혀서, 장래에는 독립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류우니(劉伍妮)씨(26살)

내륙부 허난성 출신으로, 이 공장에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은 고향의 부모님께 맡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 해서 외롭기는 하지만, 실이나 노동절, 국경절에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컸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매장 안에서의 옷의 힘

유니클로의 매장은 세계 11개국에 944개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직원이 함께 일하고, 다양한 고객이 찾아 주시는 매장. 귀를 기울이면, 옷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모습, 고객을 맞이하는 의식의 변화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들려옵니다.

Nippon Meeting

유니클로의 점포에서는, 매일 아침 오픈하기 전에, 직원 전원이 조례를 합니다. 본부로부터의 연락사항과 상품 재고상황,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의 점포에서도 「Nippon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이부한노 페페점(일본)
오키 미셸 씨

휠체어를 탄 여성 고객 한 분이 어머님과 함께 오셨을 때, 어머님이 「딸하고 같이 옷을 골라 줄래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좋아하시는 색과 모양, 자주 외출하시는 장소 등을 여쭙보면서 가게 안을 걷고 있는 사이에, 조금씩 얼굴에 미소를 보이셨고, 거울 앞에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시기도 하셨어요. 문득 돌아보니, 어머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매장에서 나가실 때는 「또 올게요」라고 두 분 모두 제게 환하게 웃어 주셨어요.

타임스퀘어점(한국)
김오경 씨

어느 날, 여성 고객이 찾아오셨어요. 코트의 색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옷들을 입어 보시게 한 후에, 가장 잘 어울렸던 베이지색을 권해 드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드시면 반포교환해 드린다고 안내해 드렸더니 「친절하게 해 줘서 고마워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품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에 관해서도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유니클로 상하이 난징시루(南京西路) 점(중국)
왕 징 씨

2010년, 상하이에서는 엑스포가 열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가게 주변인 난징시루(南京西路)를 청소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1시간 정도, 유니클로 T셔츠를 입은 직원 약 10명이 2개월에 걸쳐서 매일 청소를 계속해서, 엑스포 사무국과 지역 행정소, 상점가의 사람들 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유니클로 뿐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직원들도 주변 사람들과 아주 친해져서, 지금도 서로 아침 인사를 주고 받는 사이입니다.

Uniqlo Soho Broadway Flagship점(미국)
로베르트 리드 씨

뉴욕의 소호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양복을 입으신 비즈니스맨 고객도 많이 오십니다. 그 중에는, 가게 안에 진열된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시고서는 「믿을 수 없는 가격이군요。」라고 웃음짓고, 몇번이나 찾아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니클로의 사업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요.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지금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꼭 전해 줄 겁니다.

전세계의 종업원수

약 **40,000** 명

러시아의 유니클로 아트리움점
오픈 광경

옷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고객님께서 필요없게 된 옷을 맡겨주시면 세계의 난민·피난민에게 기증하는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 2006년에 시작한 이 활동은, 2011년 3월부터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로 확대됩니다. 2010년에는, 6월에 일어난 분쟁으로 많은 국내 피난민이 발생한 키르기스 공화국을 찾아 갔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전달해야 한다는, 기증자들의 절실한 소망을 담아 약 36만 벌의 의류를 기증하였습니다.

라호말! (고맙습니다) 이라고 하면서 옷을 수 있는 날.

「겨울이 오기 전에 완성하고 싶어요.」 2010년 11월, 늦가을의 키르기스 공화국의 국내 피난민 캠프. 지붕과 외벽 공사만을 남겨 놓은 집 앞에서 눈에 익은 옷을 입은 남성, 라스로프 톨프씨가 웃고 있다. 틀림 없다. 유니클로가 기증한 옷들 중 한 벌이다. 6월 중순의 분쟁 직후부터, UNHCR (유엔난민기구)을 중심으로 한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 그러한

가운데, 유니클로가 의류지원을 결정한 것은 7월.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9월말부터 36만 벌의 의류 배포가 시작되었다.

「집 짓는 일을 하고 있으면 옷이 더러워지지만,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정말 좋다」고하던 일을 멈추며 그가 말한다. 하지만, 그는 목수가 아니다. 부흥 지원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주택 재건 프로젝트에서 자재를 받고, 집 짓는 방법을 지도 받아서 가족이 돌아올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1,300호의 집을 짓는 프로젝트. 그 자금 중 70%가

일본정부에 의한 것이다. UNHCR 과 현지 NGO를 통하여 자재와 기술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원은 받지만, 짓는 것은 자신이다. 하나씩 기와를 쌓고, 벽을 바르고, 지붕을 덮는다. 그는 추위 때문에 폐렴을 앓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장애자 판정을 받았다. 원래 직업 (자동차 수리공)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아이도 3명이 있다. 장래는 물론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집은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가족을 추위에 떨게 하고 싶지 않다.」 그는 약간 수줍게 웃는다.

기증수/목표수(세계의 난민수)

약 312만 벌 / 3,000만 벌

키르기스 공화국: 키르기스는 중앙 아시아에 있는 구소련의 공화국. 수도는 비슈케크(옛 프룬제). 과거에는 키르기스탄이라고 통칭된 적도 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독립국가 공동체(CIS)의 가맹국이 되어 있다.

분쟁 직후인 8월에도 방문 했던 유니클로 CSR부의 닷타 유키히로 부장은 그들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 한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모두들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컴퓨터를 갖고 당시의 사진을 보면서 8월에 만났던 사람을 방문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방문했는데도 『조금 들어왔다 가세요』라든지 『식사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고기 필라프는 냄새가 조금 심했어요(웃음). 하지만, 모두들 자연스럽게

유니클로의 옷을 입고 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살 곳이 정해져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아직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에는 이르지만, 슬퍼서 우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서는, 우즈베크계의 어린이와 키르기스계의 어린이, 러시아계의 어린이가 함께 놀고 있다. 순진무구하게 웃는 얼굴들. 「자연스럽게 놀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네요」라고 닷타 부장은 말한다.

아직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커다란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햇님도 울고 있어요」라고 6월에 어린이들이 벽에 그린 슬픈 그림과 글귀. 그 글귀가 아직 새겨진 채 남아있는 거리에, 한 걸음 먼저 봄을 알린 것은 역시 어린이들의 웃는 얼굴이었다.



2개월 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사람을 찾는 유니클로의 닷타 부장. 일상을 되찾은 피난민들

분쟁으로 파괴된 주택과,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 중인 집들이 혼재되어 있다

분쟁 중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과 글귀. "햇님도 울고 있어요"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전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정말 좋은 옷」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은 옷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 좋은 회사, 가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품질의 저렴한 상품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의류 사업을 통하여 전세계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전세계의 사람들」에는, 유니클로의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은 물론, 파트너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난민 캠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저희들의 옷은 MADE FOR ALL의 옷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궁극적인 옷이란 무엇인가?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옷이 할 수 있는 것, 그 가능성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태어난 것 중 하나가, 방글라데시에서의 「사회적 기업(Social Business)」입니다. 유니클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씨가 총재로 있는 그라민 은행과 협력하여, 옷의 기획에서부터 생산, 판매까지, 현지에서 완결하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방글라데시가 안고 있는 빈곤과 위생, 교육 등의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은 아직 시작 단계로, 노력이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아직 실현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의 생각을 알려서, 공감하시는 분, 함께 하실 분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의식주 중 맨 앞에 오는 「옷」에는,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Vol.01 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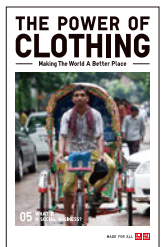
Vol.02 HEATTECH가 탄생되는 장소



Vol.03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



Vol.04 세로우치 올리브 기금과 유니클로



Vol.05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옷의 힘」은 유니클로 매장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아래의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uniqlo.com/kr/csr/>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성 (방글라데시)

